

市·道교육청, ‘2026 대입정보 설명회’ 연다

9일 조대 해오름관서 진학 아카데미

12·13일 순천만생태교육원·초당대

광주시·전남도교육청이 학부모와 수험생을 위한 ‘2026 대입정보 설명회’를 개최한다. 광주시교육청은 2일 “오는 9일 조선대학교 해오름관에서 올해 두 번째 ‘광주 진학 학부모 아카데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학부모 아카데미 주제는 ‘지역 대학 대표 입학사정관에게 듣는 대입 이야기’로 지역 대학의 입학사정관이 대입 기본 정보, 지역 대학 전형·학과·학사 정보 등 학부모가 궁금해하

는 내용을 소개할 예정이다.

강사로는 전국 최초 입학사정관 출신 이해림 시교육청 대입지원관과 류윤희(광주교대)·김민자(전남대)·고은애(조선대) 입학사정관 등이 참여한다.

학부모 아카데미는 현실적인 조언으로 학부모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3월 올해 처음으로 열린 학부모 아카데미에는 400여명 이상의 학부모가 몰렸으며, 이번 행사에도 400여명의 학부모가 사전 신청했다. 참가를 희망하는 학부모는 당일 현장 접수가 가능하다.

전남도교육청도 오는 12일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과 13일 초당대학교에서 ‘2026학년도 대

입정보 박람회’를 연다.

박람회는 2026학년도 대입 제도 변화에 발맞춰 수험생과 학부모가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를 제공하고, 복잡한 전형별 특징과 준비 전략을 현장에서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전국 86개 대학이 참가하며, 대학별 전형 안내와 개별 맞춤 상담이 진행된다.

특히 전문성을 갖춘 상담협력교사와의 1대1 맞춤형 대입 상담이 함께 운영돼 실질적인 진학 전략 수립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2026학년도 대입 지원 전략’ 특강에서는

▲학생부 중심 전형 확대 ▲지역인재 선발 강화 ▲서류 및 면접 중심 전형의 중요성 증가 등 변화된 대입 환경을 종합 분석하고, 학생 개인의 강점을 살린 전략 수립 방법을 제시할 예정이다.

학생부 활용 노하우부터 전형별 전략 수립 방향까지 변화된 입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 정보가 제공된다.

이정선 시교육감은 “자녀의 입시를 앞두고 막막해하는 학부모들에게 공교육 안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광주 진학 학부모 아카데미를 시작했다”며 “학생들이 자신에게 맞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다이지

또래 女 사진 도용 10대 ‘벌금 500만원’

또래 여학생의 사진과 성적 수치심을 느낄 문구를 성명불상자에게 보내 SNS상에 유포되게 한 1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단독 안지연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군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8월8일 성명불상자에게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B양의 얼굴 사진과 함께 성적인 내용의 ‘하위 문구’를 넘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군으로부터 이를 건네받은 성명불상자는 SNS에 그대로 게시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군 측은 B양을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게시글의 내용과 표현으로 훼손된 명예의 침해 정도를 종합해 보면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안재영 기자



조룩비가 주룩주룩 때이른 더위를 식혀주는 비가 내린 2일 오전 전남대학교에서 시민들이 우산을 쓰고 메타세쿼이아 길을 걷고 있다. /김애리 기자·조영권 인턴기자

배우자와 다툼 중 방화 40대 구속영장

광주 서부경찰서는 2일 배우자와 말다툼 중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불건방화)로 A(40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전날 오전 4시께 광주 서구 쌍촌동 한 도로에 버려져 있던 쓰레기봉투에 불을 질러 인근에 세워진 차량 1대를 태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냈으며, 불을 붙인 봉투를 또 다른 차량 옆에 뒤 재차 방화를 시도하기도 했다.

불은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꺼져 다친 사람은 없지만, 차량 일부가 소실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가정불화로 배우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화김에 그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성학 기자

“더블스타, 금타 고용·환경 문제 등 입장 밝혀야”

광산구 추최 대책회의의 참여자들

‘책임 주체’ 강조…정례화 계획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피해 대응을 위한 민·관 공동 대책회의에서 대주주인 더블스타가 책임 있는 입장을 조속히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광산구는 2일 오후 구청 2층 상황실에서 ‘금호타이어 화재 대응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박병규 광산구청장과 지역 노동계·시민사회·기업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로 인한 고용·이전·환경 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는데, 각

사안이 미치는 영향은 다르겠지만 책임 주체는 금호타이어의 대주주인 ‘더블스타’라고 입을 모았다.

특히 더블스타 측이 ▲재발 방지 대책 ▲주인 피해 보상 ▲노동자 고용 안정 등에 대한 책임 있는 입장을 조속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화재는 진화했지만 고용, 생활, 경제 피해는 이제부터 본격화되고 있다”며 “더블스타가 직접 나서 재발 방지와 고용·환경 문제, 공장 이전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지역사회와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순 금호타이어 노동조합 위원장은 “이번 사태의 1차 피해자는 노동자이고, 2차 피해자는

시민들”이라며 “피해 복구든 공장 이전이든 결국 대주주인 더블스타가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같은 의견에 대해 금호타이어 측은 구체적인 답변을 피해 참석자들로부터 아쉬움을 샀다.

성용태 금호타이어 노사협력 상무는 “향후 대안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또 다른 오해를 불러올 수 있어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하기는 조심스럽다”면서 “피해 복구와 회사 정상화를 위해 책임 있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산구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대책을 구체화하고 관련 회의도 정례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성학·이옥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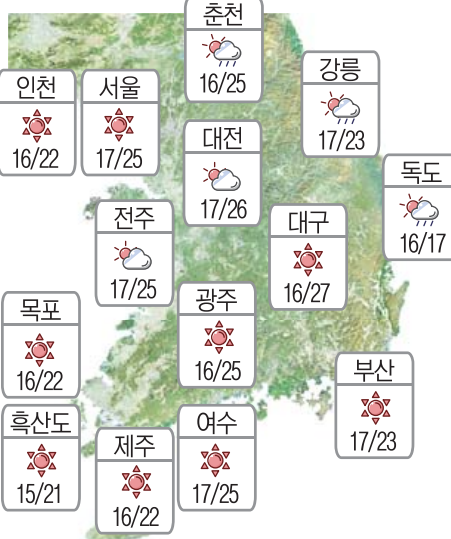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19 해질 19:43 🌙달돋이 12:21 달짐 00:53

●광주·전남 날씨

광주	맑음	16/25	장성	구름조금	15/24
목포	맑음	16/22	보성	맑음	15/25
여수	맑음	17/25	함평	맑음	16/23
나주	맑음	16/24	순천	맑음	16/26
완도	맑음	16/25	영광	맑음	16/23
구례	맑음	16/26	진도	맑음	15/22
강진	맑음	16/25	흑산도	맑음	15/21
해남	맑음	16/23	고흥	맑음	16/26
광양	맑음	16/26	담양	구름조금	16/25

●전국 날씨



●바다 날씨

위치	오전/파고(m)	오후/파고(m)
서해 앞바다	0.5-1.5	0.5-1.0
남해 앞바다(북)	1.0-2.5	1.0-2.0
남해 앞바다(남)	1.5-3.5	1.0-2.0
남해 앞바다(동)	0.5-1.5	0.5-1.5
서해 앞바다(서)	1.5-2.5	1.0-2.5

●물때

지역	만조	간조	만조	간조	만조	간조
목포	07:43	00:12	여수	02:26	08:51	03:15
	19:57	13:14		15:10	20:56	15:57

●생활정보지수

나들이 70

세차 60

감기 조심해요

급하지 않으면 미루세요

빨래 50

운동 50

실내건조 좋아요

준비운동은 충분하

●주간 날씨

4일(수)	5일(목)	6일(금)
☀(16/26) 맑음	☀(16/28) 맑음	☁(17/29) 구름조금
7일(토)	8일(일)	9일(월)
☁(18/29) 구름조금	☁(19/28) 구름많음	☁(20/28) 구름많음
▶날씨안내 : 국번없이 131		

자연도, 부모님도

사랑합니다.

아름다운 자연 / 사육기한 없음 / 365일 관리 / 광주에서 20분 / 무료 안치

광주수목장 문의 062.449.4446